

# 가수 강남, 한국 귀화 신청한다

### 일본인 아버지-한국인 어머니...일본국적 포기 올해 3월 '빙상스타' 이상화와 공개 열애 밝혀 최근 한·일 관계 악화 상항서 선택해 '관심'

일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를 둔 가수 겸 MC 강남(32·나메카와 야스오)이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귀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강남이 한국으로 귀화를 하기로 했다. 곧 귀화 신청서를 출입국관리소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강남이 귀화를 결심한 이유와 관련, 디모스트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고,

개인적인 사유라 특정해서 전달하기 힘들다"고 했다. 군 복무에 대해서는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하는데 1, 2년 가량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군복무와 관련해서 언급하기에는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강남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꾸준히 드러내왔다. 2016년 한국문화예술회원회가 음악제원 엠넷과 손잡고 선보

이고 있는 '판 스타라 : 국악의 역습'에 출연한 것이 보이다. '판 스타라'에서 국악기 태평소를 택했던 강남은 당시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한(韓),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걸 느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국악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됐죠. 애절하면서도 아련하면서도 느낌, 그게 한 맞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남은 2011년 그룹 'MIB' 멤버로 한국에 데뷔했다. 팀 해체 이후 예능 프로그램 위주로 솔로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스피드스케이팅 스타 이상화(30)와 열애 중인 사실이 공개됐다. 그의 귀화 결정에 이상화와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택하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을 끈다. 뉴시스

# 방탄소년단, 잠시 쉬었다갑니다...데뷔 6년만에 첫 장기휴가

### 기간은 미공개...멤버들 각자 방식 휴식 취해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데뷔 6년 만에 첫 장기휴가를 받았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방탄소년단이 데뷔 후 처음으로 공

식 장기 휴가를 가질 예정"이라면서 "11일 '롯데 면세점 패밀리 콘서트' 무대가 방탄소년단의 휴가 전 마지막 공식 일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장기 휴가는 데뷔 이후 쉬 없이 달려온 방탄소년단이 뮤지션으로, 그리고 창작자로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짧지만 평범한 20대 청년으로 일상의 삶을 즐길 시간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멤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을 취할 계획이다. 기간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빅히트 관계자는 "만약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방탄소년단과 마주치더라도 멤버들이 온전히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고 청했다. "방탄소년단은 재충전의 시간 후 더욱 멋진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2013년 싱글 '2 Cool 4 Skool(2 Cool 4 SKOOL)'로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미국 빌보드 메인앨범 차트 '빌보드200'에서 3번 1위를 차지하는 등 K팝의 역사를 새로 써왔다.

# tvN 주말극 '호텔 델루나' 두 자릿수 시청률로 올라섰다



tvN 주말드라마 '호텔 델루나'가 시청률 10%대를 찍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1일 밤 9시에 방송한 '호텔 델루나' 제10회가 유료가입가구 기준 시청률 10%를 기록했다. 전날보다 1.7%포인트 올랐다. 비자상과 동시간대 1위다. 이날 방송에서는 '장만월' (이지은)과 '구찬성' (여진구)의 로맨스가 시작됐다.

# 이민호·김고은

### "SBS에서 만나요" '더 킹 : 영원의 군주' 계약

이민호(32)·김고은(28) 주연의 '더 킹 : 영원의 군주'가 SBS에서 시청자들을 만난다. 제작사 화엔타픽처스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SBS와 최초 방영권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더 킹'은 내년 상반기 SBS에서 방송된 후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더 킹'은 평행세계인 대한민국과 대한제국을 배경으로 한다. 약마의 속삭임에 맞서 차원의 문을 닫으려는 이과형 대한제국 황제 '이과' (이민호)와 누군가의 삶, 사람, 사랑을 지키려는 문과형 대한민국 형사 '정태' (김고은)이 두 세계를 넘나들며 공조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김고은은 정태와 함께 대한제국에서 범죄자로 밀바다 삶을 살아가는 '루나'로 1인2역에 도전한다. '태양의 후예' (2016)의 김은숙 작가와 백상훈 PD가 만든다. 이민호는 사회복지요원으로 대체복무 후 복귀작이다. 김 작가와 '상속자들' (2013)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호흡을 맞춘다. 김고은은 '도깨비' (2016-2017) 이후 2년 여만에 김 작가와 만난다. 공유 (40)에 이어 이민호(32)와 그릴 로맨스 연기에 기대가 모아진다.

#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

- 쥐띠** 자기 주장만 옳다 말고 가족들 충고에 귀기울여 보라. 힘든 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협조를 얻어 해결하면 좋겠지만 상대가 없어 답답한 상태. 자존심을 상했던 상대에게서 연락 온다. 좋아하는 이 멀리하고 싶은 자를 가까이 두고 있는 격.
- 소띠** 내가 제일이라는 자만심은 금물. 항상 겸손하게 처신하라. 건강이 안 좋아져 걱정을 끼칠 우려 있는 가족이 있으니 신경을 쓰는 게 좋다. 사랑에도 분수를 지켜야 할 때다. 2, 8, 11월생이 나를 위해 줄 수 있다는 것은 말뿐이다.
- 범띠** 모임도 종교 여행도 좋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다. 손재가 아니면 상처를 입게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겠으나 각별히 신경 써라. 북, 동쪽으로는 가지 마라. 친척간이 헤타산으로 논쟁 우려 있다.
- 토끼띠**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고 언행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 없이 풀린 말로 큰 병변을 당할 수 있다. 사람이 무리하게 돈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돈이 사람을 따라야 자연스러운 법. 진실된 지혜를 받아들여라. 애정 생활만 신중히 주의할 것.
- 용띠** 나는 잘 할 수 있다. 책임을 다해가고 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고심한다. 7, 8, 9월생은 자기가 뿌린 씨로 말미암아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 전가는 불행의 자초한다. 남의 마음 알아줘야 자신도 이해받는 법. 애정은 혼자 애대우는 격.
- 뱀띠**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으니 심신이 피로하고 짜증만 생긴다. 미혼자 생활이 홀수인 자는 금년에 결혼수 있다. 단 타인에 의해 결정되니 주변을 조심할 것. 뱀, 소, 닭띠가 배필같다. 당신이서 있을 땐 스스로 찾게 좋다.
- 말띠** 어느 길이 올바른 길이고 또 잘못된 길인지 판단하기 힘들면 2, 7, 11월생은 주위사람의 조언을 참고하고 처신함이 좋다. 여행을 가는 것은 좋지만 혼자서는 가지 말 것. 서, 북쪽이 행운을 주는 방향이다.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는 것이 어필지.
- 양띠** 두 가지 일을 놓고서 망설이지 말고 과감히 하나만 택하는 게 좋다. 지혜로운 선택의 대가는 분명히 올 것이다.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선물도 받겠다. 기쁜전환 실마 나들이를 가도 좋다. 돼지, 용, 닭띠의 힘을 빌려라. 도움이 될 것이다.
- 원숭이띠** 회사원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라.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7, 8, 9월생은 서두르지 마라. 1, 3, 11월생은 처분한 행동으로 현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좋을 듯. 3, 5, 12월생 중 권 빛난다.
- 닭띠**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도움을 청하는 게 좋다. 북쪽 친지에게서 받을 수 있을 듯. 사랑을 하면 희생이 따르고 좋아하는 것에는 아픔이 따르는 법. 서로가 어려운 점을 극복함으로써 이해하게 되고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 금전으로 승사수 조심.
- 개띠**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에게 속임을 당할 수 있겠으니 힘든 문제가 터져도 신중히 처신하라. 동업은 삼가고 화합에 언행을 함부로 하다가 큰코 다친다. 오늘 실수하게 되면 후회할 것이다. 답답함을 남, 동쪽에서 풀라. 행운이 있는 방향.
- 돼지띠** 물질적인 것보다는 정신적인 것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 서두르지 말고 관찰상태가 되어 보라. 자녀 문제로 노심 초사하겠지만 순조롭게 해결될 것이다. 불로소득은 생각지도 말 것. 욕심이 크면 빛만 태산처럼 쌓인다. 오늘만은 쉬는 게 상책.

도민을 먼저 생각하는 전라남도

**전남도, 정부합동평가 우수사례 전국 2위**

앞으로도 좋은 정책으로 열심히 일하는 전라남도가 되겠습니다!